



해외출장 가이드

말레이시아 출장자료

1

말레이시아 개황

국 명	• 말레이시아 연방(Federation of Malaysia)
지 리	• 말레이반도의 남부를 차지하는 서말레이시아(약 13만km ²)와 보르네오섬 북서부의 사라왁 및 사바로 이루어지는 동말레이시아(약 20만km ²)로 구성
면 적	• 330,252km ² (한국의 3.3배/ 한반도의 1.5배)
기 후	• 전형적인 열대우림형으로 고온다습하며, 연평균기온은 27℃, 연평균 강우량 2,410mm임. 말레이반도의 동해안에서는 북동 몬순기(10~2월)에 상당하는 집중 강우를 볼 수 있음
수 도	•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인 구	• 3,100만 (2015년 추정치)
주요도시	• 쿠알라룸푸르(167만), 조호바루(139만), 페낭(127만), 이뽏(66만), 말라카(48만)
민 족	• 말레이계 62%, 중국계 23%, 인도계 7%, 기타 8%
종 교	• 이슬람교 60%, 불교 20%, 기독교 9%, 힌두교 6%, 기타 5%
언 어	• 말레이어(공용어), 영어(상용), 중국어 - 약 140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음(말레이시아 반도 40개, 사바 54개, 사라왁46개)
통 화	• 링깃(Ringgit) : Rm 혹은 M\$로 표시 - 1링깃=약 287원, 1US\$=약 4.05링깃 (2016년. 3월 18일 매매기준율)
국가형태	• 연방 입헌군주제(Federated constitutional monarchy) - 3개 연방직할지, 서말레이시아(말레이반도) 11개주 및 동말레이시아 2개주 등 13개주로 구성 ※ 연방직할지 : 쿠알라룸푸르('74년 설정), 라부안('84년 설정), 푸트라자야('01년 설정) ※ 지방정부가 국방, 외교 분야를 제외하고 상당한 실권 행사 - 말레이계 9개주 술탄이 5년마다 순환하며 국왕 역할 수행 ※ 4개주(페낭, 말라카, 사바, 사라왁)에는 국왕이 임명하는 총독 존재
국가원수	• Tuanku Abdul Halim(14대 국왕, '27.11.28生, '11.12.13 취임) - 제5대('70.9.21-'75.9.20)에 이어 2번째 국왕직을 수행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총리 : Najib Razak(재무부 장관 겸임)
입 법 부	• 양원제(상원 70석, 하원222석) - 상원 : 6년 임기, 26석은 선출, 44석은 국왕 임명 - 하원 : 5년 임기, 222석 모두 선출

2

쿠알라룸푸르의 역사 및 발전

□ 쿠알라룸푸르 명칭의 유래

- 쿠알라룸푸르의 공식 명칭은 'Wilayah Persekutuan Kuala Lumpur (쿠알라룸푸르 연방령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통상 KL로 표기하며 한문으로는 '吉隆坡'로 표기함
- 말레이시아는 오랫동안 셀랑고르(Selangor)州的 왕이 지배했던 지역으로 셀랑고르州는 행정과 무역의 중심지였음. 셀랑고르州 왕이던 라자 압둘라가 주석 채굴꾼들에게 클랑 벨리를 개방하면서 87명의 중국인들이 클랑 강을 거슬러 올라가 암팡 지역에서 주석을 채굴하기 시작한 것을 지금의 쿠알라룸푸르의 시초로 보고 있음
- 클랑 강과 곱박 강 합류점에 주석을 찾아 올라온 광산업자들과 상인들이 거주지를 개설하고 '진흙 강의 합류지'라는 의미의 'Kuala Lumpur'라고 부르면서 지금의 이름이 유래되었음

□ 쿠알라룸푸르의 발전과 현재

- 1860년대부터 본격적인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으나 이후 광산의 개발권과 물 사용권을 놓고 지속적인 분쟁이 있었음. 이 때 압 아 로이(Yap Ah Roy)라는 중국인이 이 분쟁을 종식시키고 번성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1896년에는 쿠알라룸푸르와 인근 항구도시인 클랑을 연결하는 말레이시아 최초의 철도가 건설되었음
- 1946년에 말라야 연방의 수도가 되며 1957년 말레이시아 독립 이후 본격적인 근대국가의 수도로 발전하게 되었음
- 1974년에는 연방 정부 직할 지역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현재 쿠알라룸푸르의 면적은 243km², 인구는 165만 명이며 인근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면적 2,793km², 인구 720만 명의 거대 도시로 성장하였음

3

말레이시아 경제현황

□ 국내총생산(GDP)

- 2015년 말레이시아 경제는 4분기 GDP가 4.5%를 달성하면서 연평균 GDP가 5.0% 성장한 것으로 정리되면서, 전년도 성장률 6% 보다는 하락했으나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됨.

[말레이시아 2015년-2016년 분기별 경제성장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6년 1분기
5.6%	4.9%	4.7%	4.5%	4.2%

- 2015년 하반기 국제 유가하락과 중국 시장침체로 국제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섰던 것을 고려해 자원 수출 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 연평균 GDP가 5% 미만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기계류와 자동차/선박 등 제조업 분야에서의 성장에 힘입어 5%의 성장률 달성

□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

- 2015년 4월 1일부로 도입된 6%의 GST(재화용역세)와 링깃화 환율 폭등으로 인한 수입 물가상승 등 인플레이션 유발요소들이 많았음.
-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인상억제 정책과 국제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라마단 이후 ‘하리라야’ 특수가 있던 7,8월을 제외하고는 3%대 이하의 물가상승률을 유지.
- 국제 경기침체에 따라 2015년 실업률도 2014년보다는 약간 상승한 3.2%대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음.

□ 대외경제

- 2015년 말레이시아의 총 교역액은 전년 대비 1.2%가 증가한 1.466조 링깃(약 3,400억불) 으로 9년 연속 총 교역액이 1조 링깃을 넘어서는 상황임.
- 2015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2.8%의 교역감소를 기록했으나, 하반기에 5.1%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면서 2015년 전체적으로 성장세로 마무리하였음.
- 이러한 교역액 증가는 중국, 아세안, 미국, EU등 주요 교역대상국과 지역들과의 교역이 전체적으로 성장한 것에 따른 것임.

□ 정부부채

- 2015년 정부재정적자규모는 국제유가 하락과 경기 침체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GST 실시로 인한 세수확대와 재정지출 조정으로 GDP 대비 3.2%로 선방을 한 상황임.
- 비록 2015년 총 정부부채의 규모는 예상했던대로 GDP 대비 54.5%가 되었지만, 주로 국내 인프라개발을 위한 국내 부채 비중이 96.6%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임.

□ 외국인투자유치

-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가스 부문 외국인투자 위축으로 다시 감소했으나 2015년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은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인 101억불 수준을 달성하였음.

- 특히 지역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 투자가 많이 줄었고, 분야별로는 석유/가스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투자유치(단위: 백만 달러)]

유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투자유치	12,198	10,074	12,306	10,171	10,124
해외투자	15,249	17,115	13,600	15,306	9,012

자료: Malaysia central bank & Department of statistics

□ 경제성장 전망

- 2016년에는 국제유가와 링깃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1분기 경제성장률이 4.2%에 머물러 2015년과 같은 5%대 성장은 어렵고 4.5%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말레이시아 주요 경제 지표

	단 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GDP (1인당 GDP)	US\$억 (US\$)	2,890 (9,979)	3,047 (10,387)	3,124 (10,548)	3,381 (11,387)	296.3 (11,387)
경제성장률	%	5.1	5.6	4.7	6.0	5.0
1인당 GDP (구매력기준)	US\$	21,855	23,079	24,181	25,698	26,858
소비자물가상승율	%	3.0	1.2	3.2	2.8	2.7
실업률	%	3.1	3.0	3.1	3.0	3.2
환율 (기말기준)	링깃:달러	3.18	3.06	3.28	3.13	4.29
수출(FOB)	US\$억	2,286	2,277	2,240	2,371	1,755
수입(FOB)	US\$억	1,791	1,869	1,903	1,977	1,485
무역수지	US\$억	495	408	337	394	269
경상수지	US\$억	335	186	132	177	60.8*
정부재정수지 (GDP대비)	%	-4.8	-4.5	-3.5	-4.1	-3.2
누적정부부채 (GDP대비)	%	48.6	50.0	51.7	51.9	54.5
외환보유고	US\$억	1,336	1,397	1,349	1,383	942

* 자료원 : EIU, IMF

4

말레이시아 경제정책 방향

- 말레이시아는 석유가스, 팜오일, 고무, 목재, 주석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 부국이자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조업 기반확충 노력의 결과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화학제품 및 철강분야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도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 확보하고 있음
- 최근에는 IT, 바이오산업, 이슬람금융, 관광, 교육 등 첨단기술 집약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어 탄탄한 1·2차 산업의 기반위에 첨단기술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Vision 2020’이라는 장기 발전전략과 5년 단위의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5년 단위의 말레이시아 계획(Malaysian Plan)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이 포함되어 말레이시아 경제정책 및 발전전략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2015년 5월 발표된 제11차 말레이시아계획과 함께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개혁 방안인 New Economic Model(NEM)을 발표·추진 중임

< NEM 기본 원칙 >

- High Income : 현재 1인당 GDP 1만1천불에서 2020년 까지 1만5천불로 도약
- Sustainability :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과 자원에 대한 배려로 삶의 질 향상
- Inclusiveness : 인종에 무관한 빈곤탈피 정책 추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NEM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민간부문 주도의 경제발전, 지방자치에 따른 결정, 클러스터 및 경제구역 기반 경제활동 강화, 기술 산업 및 기업 우대, 아시아 및 중동지역 중시, 고급 기술인력 유치 등과 같은 실천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5 말레이시아 교역동향

□ 품목별 수출입

- 2015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3대 수출대상국은 싱가포르, 중국, 일본이었으며, 한국은 10대 수출국이었음.
- 2015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3대 수입대상국은 중국, 싱가포르, 미국이었으며, 한국은 7대 수출대상국으로 자리잡았으나, 인도네시아의 추격이 거센 상황임.

【말레이시아 10대 교역 대상국】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수출				수입			
	국가명	'13년	'14년	'15년	국가명	'13년	'14년	'15년
1	싱가포르	31,852	33,257	27,807	중국	33,740	35,284	33,155
2	중국	30,736	28,185	25,986	싱가포르	25,504	26,174	21,051
3	일본	25,150	25,245	18,999	미국	17,899	16,713	14,185
4	미국	18,444	19,688	18,861	일본	16,179	15,986	13,785
5	태국	12,674	12,294	11,403	태국	12,281	12,112	10,691
6	홍콩	9,898	11,326	9,482	대만	9,990	10,497	9,373
7	인도	9,258	10,093	8,127	한국	9,725	9,683	7,968
8	인도네시아	8,173	9,767	7,472	인도네시아	8,879	8,468	7,949
9	호주	10,500	9,718	7,213	독일	7,521	7,090	6,009
10	한국	8,314	8,522	6,474	베트남	5,243	6,190	4,823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품목별 수출입

- 2015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3대 수출 품목은 전자집적회로, 석유가스, 석유제품이며 이들 3대 품목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30% 가까이 차지하였음
- 특히 상위 2개 제품의 수출은 증가하여 각각 11.6%, 2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석유제품의 수출은 4.8%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음

- 말레이시아의 3대 수입 품목은 전자집적회로, 석유제품, 원유이며 2015년 기준 이들 3대 품목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15% 이상을 차지하였음
- 전체적으로 수입과 수출이 모두 감소추세였으며, 특히 석유가스와 관련 제품들의 수출이 40% 가까이 감소하였음.

【말레이시아 10대 교역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HS Code)	'13년	'14년	'15년	품목명 (HS Code)	'13년	'14년	'15년
1	전자집적회로 (8542)	27,767	31,014	27,247	전자집적회로 (8542)	26,523	29,238	24,755
2	석유가스 (2711)	20,365	20,867	12,810	석유제품 (2710)	22,078	22,777	14,697
3	석유제품 (2710)	19,397	18,455	10,637	원유 (2709)	7,172	7,705	3,353
4	팜오일 (1511)	12,307	11,989	9,478	다이오드 반도체 장치(8541)	3,883	4,167	3,837
5	원유 (2709)	10,200	10,514	6,857	유선 전신기기 (8517)	3,890	3,836	3,790
6	자동차료 처리기기 (8471)	8,907	8,256	7,642	컴퓨터 주변기기 (8473)	3,654	3,216	2,690
7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8541)	7,443	7,861	8,024	금 (7108)	3,465	3,206	2,841
8	사무용기기 부품 (8473)	5,420	4,491	3,827	기타항공기 (8802)	4,249	3,153	1,165
9	유선전화기 (8517)	3,530	4,187	3,718	자동차료 처리기기 (8471)	2,964	2,628	2,566
10	텔레비전, 모니터 (8528)	3,996	3,427	2,563	니켈의 괴 (7502)	1,297	2,425	1,853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6

말레이시아 투자동향

□ 말레이시아 투자환경

- 말레이시아는 지리적으로 ASEAN 지역의 중심에 있다는 이점 외에도, 이슬람이 국교이면서 경제계에 화교의 영향력이 크고 영어가 통용된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시장임.
- 이에 내수시장에 기회가 많음은 물론 여러 국가와의 접근성도 용이하여 투자매력도가 높은 국가임.
- IMD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말레이시아의 2014년 국가경쟁력은 12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인근 동남아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주요 외국기업 진출현황

- 말레이시아에는 전기전자산업, 화학산업을 중심으로 5천 여 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음.
- 전기전자산업의 대표기업으로는 Intel, AMD, Toshiba, Hitach, Ibiden, Philips, Panasonic, Infenion 등이 있고, 석유화학기업으로는 Royal Dutch Shell, Exxon Mobil, Tokuyama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기업으로는 Honda, Toyota, Denso 등이 있음.
- 2014년 기준 말레이시아 정부가 승인한 제조업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승인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일본이 최대 투자국임.

[최근 2년간 말레이시아 제조업 투자유치동향]

(단위 : 건, 백만 달러)

	2014년		2013년	
	건수	투자유치액	건수	투자유치액
일본	55	3,105	55	1,095
싱가포르	121	2,234	126	1,379
중국	24	1,357	22	920
독일	13	1,261	17	523
한국	11	442	13	1,670
미국	23	385	19	1,927

* 자료원 : Malaysia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 투자유망 분야

- 말레이시아 정부차원에서 항공우주산업, 생명공학산업, 정보통신기술 등 고도기술 수반 제조업이나 관광산업, 해운 및 운송업, 교육산업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함.
- 단 서비스 산업의 경우 말레이계 현지인 지분 요건을 적용하거나 법률분야 등은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제약이 있음.

7

한국-말레이시아 경제관계

□ 교역동향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은 77억 3,529만 달러, 수입은 86억 943만 달러를 기록하여 교역수지는 8억 7,414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14대 수출국이자 14대 수입국

[최근 5년간 한국의 對 말레이시아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2015
對말련 수출	6,275 (2.6)	7,723 (24.3)	8,588 (11.2)	7,588 (-11.6)	7,735 (2.0)
對말련 수입	10,468 (9.8)	9,796 (-6.4)	11,096 (13.3)	11,101 (0.05)	8,609 (-22.4)
교역수지	-4,193	-2,073	-2,508	-3,513	-874

* 자료 : KITA

□ 품목별 교역동향

-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경유, 집적회로반도체, 철 구조물, 평판디스플레이 등으로 장치산업에 기반을 둔 제조업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주요 수입 품목은 천연가스, 집적회로반도체, 중유, 개별소자반도체, 컴퓨터부품 등임. 우리나라의 對 말레이시아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가스 등 천연자원과 말레이시아가 발달한 전기전자 부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한국의 對 말레이시아 품목별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수출 품목	2014년	2015년	수입 품목	2014년	2015년
경유	313,846	1,271,817	천연가스	3,191,611	2,132,220
집적회로반도체	683,048	816,938	집적회로반도체	872,336	999,073
철구조물	39,324	379,686	중유	1,485,609	846,266
평판디스플레이	597,464	325,293	개별소자반도체	272,362	382,844
기타정밀화학원료	323,405	301,996	컴퓨터부품	369,417	314,844
합성고무	285,202	269,373	알루미늄괴및 스크랩	298,967	289,096
동괴및스크랩	222,105	267,792	식물성유지	271,152	215,274
합성수지	292,788	216,771	원유	449,851	154,931
제트유및등유	0	125,351	합판	171,501	140,759
냉연강판	154,107	111,442	실리콘웨이퍼	55,643	129,045

* 자료원 : KITA

- 이 밖에도 말레이시아는 자국 자동차브랜드(Proton, Perdua)를 가지고 있어서 자동차부품 수요도 있고, 최근 들어 한국산 자동차가 인기를 끌면서 자동차용 악세서리 시장도 유망한 편임.
- 1980년대부터 정부차원에서 육성해 온 전기/전자 산업을 기반으로 반도체 및 소형가전 산업이 발전해 전자부품 및 반도체 제조설비 및 장비 시장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음.
- 최근에는 한류열풍을 타고 식품이나 화장품, 생활용품, 건강용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화장품의 경우, 2015년에도 2014년에 이어 4천만불을 돌파하면서 2010년 대비 4배나 성장하였고, 특히 대기업 브랜드보다 OEM이나 ODM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들의 성장이 더 빨랐던 것으로 분석되었음.

- 식품의 경우에도 2010년대에 들어와 라면과 김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라면의 경우 할랄인증을 받은 라면들이 등장하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임.

[對말레이시아 김치/라면 수출 통계]

(단위 : 천달러)

품목군	MTI Code	한국 → 말레이시아		
		2013년	2014년	2015년
김치 등 절임류	200599	706	705	678
라면 등 면류	190230	4,780	5,287	6,725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생활용품이나 가정용품의 경우, 한류드라마의 영향으로 현지 유통점에서 자주 개최되는 한류상품전(Korea Fair)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또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각종 플랜트 프로젝트들을 한국 대기업들이 수주하고, 한국 벤더들이 동반진출하면서 한국산 축전기, 밸브, 펌프 등 기계장치나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
- 그 밖에도 수출 순위에서 35위권 안에 든 품목 중에서 대기업형 제품군을 뺀 일반 제품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중소/중견기업형 對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천달러)

수출 순위	품목명	2014년	2015년
		수출금액	수출금액
	총계	7,582,611	7,735,293
7	동괴및스크랩	222,105	267,792
11	인쇄회로	123,826	104,540
12	반도체제조용장비	41,068	102,374
14	동조가공품	130,471	100,729
16	알루미늄조가공품	72,707	82,186
17	기타산업기계	47,682	80,994
18	기타석유화학제품	87,612	80,423
20	축전기	74,969	75,761
22	기타플라스틱제품	79,709	73,145
23	필름류	62,693	71,232
24	자동차부품	77,080	69,961
25	계측기	70,716	67,510
26	선재	107,594	62,645
27	무선통신기기부품	9,262	58,588
28	축전지	74,568	55,730
29	아연괴및스크랩	60,833	53,392
30	기타금형	44,775	51,241
31	밸브	38,076	49,589
35	화장품	43,100	43,077

자료원 : KITA.NET

□ 투자동향

- 1980년 이후 2016년 3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對 말레이시아 투자진출 실적은 신고기준으로 총 1,796건에 74.51억불이며, 727개 법인이 진출했던 것으로 분석되었음.
- 우리나라의 2015년 對말레이시아 투자진출실적(신고기준)은 112건에 5억 2,642만 달러이며, 말레이시아로부터의 투자유치실적(신고기준)은 총 20건, 89백만 달러임.
- 2015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우리나라의 對 말레이시아 업종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2015년에는 60.3%, 2016년 1분기에는 78.5%로 압도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뒤를 도소매유통업, 과학기술컨설팅 등이 10%대 비중으로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현지 투자진출 성공사례 : 삼성 SEREMBAN 전자복합단지

- 1989년 9월 공장 설립 이후 14억 달러가 넘게 투자된 삼성 SEREMBAN 전자 복합단지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코닝의 해외법인이 입주해 패널, 컴퓨터용 칼라 모니터, 전제레인지 오븐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생산 체계를 갖추어 대표적인 한국계 투자기업이었음.
- 우수인력의 확보 및 양성으로 현지인의 생산성 제고 및 지속적인 현지 협력업체 개발로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사회에 기여를 통해 외국기업에 대한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성공한 사례임
- 그 밖에도 고려제강, 롯데케미칼 등 제조법인들이 진출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고, 플랜트 및 건물 건설분야 수주가 늘면서 한국계 건설/플랜트 기업들의 현지 진출도 활발한 상황임.

□ 대외 개방적 경제구조

- 인구 3,042만에 비해 교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비즈니스 환경이 양호함에 따라 각 분야의 세계적 우수업체가 진출, 경쟁 중임. '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추진으로 약 5,000개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여 전기전자 등 제조업을 주도하고 있음
- 현지 진출 외국 기업 및 현지 기업이 대부분 완제품 조립 산업 위주의 제조 활동을 하고 있어 기계 설비, 중간재 및 부품 등 자본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음. 즉,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전형적 가공 무역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국산품 장려 및 완제품 수입 억제를 추진하면서 완제품보다는 부품, 반제품 형태의 수출 추진이 유리

□ 화교의 영향력이 큰 내수시장

- 전체 인구의 23%인 화교로 지칭되는 중국계가 상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동남아 화교 네트워크는 물론 중국 본토, 대만, 홍콩 등지의 화교 경제권과도 연계되어 있음.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마케팅 활동에 있어 화교와의 유대 관계 형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
- 소비 지출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5%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한류의 영향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화장품 등 미용용품, 친환경제품, IT기기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ASEAN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역내교역도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직수입 보다 중간수입업체를 통한 납품이 일반화

- 말레이시아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대기업들은 직수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직접 납품을 받지 않는 이유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기업에 가능한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임

- 다소 가격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말레이시아 자국기업이 중간 수입업체나 디스트리뷰터 역할을 할 경우 자국기업이 매출을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임
- 일반 민간 대기업들이 직수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공급선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임.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대형유통체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제품마다 수입 및 통관 절차가 상이함
- 이에 이를 직접 수입하기에는 공급선 관리 및 수입관련 행정업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현지 수입유통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을 받고 있음

□ 정부공사 및 공공기관 납품 시 말레이계 기업 우대

- 말레이시아에서는 프로젝트 수주나 공공공사 수주 관련해서 말레이계 기업 우대 관행을 염두에 두어야 함. 말레이시아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에 비해 경제적 위상이 약했던 말레이계 말레이시아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를 부미푸트라 정책이라고 함
- 지금은 부미푸트라 정책이 거의 없어졌다고는 하나 국영기업이 발주하는 프로젝트, 공공공사 수주 시에는 여전히 부미푸트라 정책이 유효하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독점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나스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말레이계 현지 업체를 독점 에이전트로 선정하거나 말레이계 지분이 포함된 회사(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함
- 즉 페트로나스 납품업체가 되거나 프로젝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부미푸트라에 참여인 것임. 원칙적으로 외국기업은 페트로나스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공급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임
- 이외에도 국공립 병원에 의료기기 납품, 건설업관련 상시면허 취득, 물산업 참여에 필수적인 관련 면허 취득 등도 말레이계 기업이나 현지 기업만 가능함. 이에 프로젝트 공사 관련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상담시 유의사항

-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담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함. 미팅 전에는 바이어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팅에는 정장차림으로 약속 시간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함
- 상담시 기술사양이 수록되어 있는 카탈로그와 샘플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샘플제시가 어려운 제품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성과 우수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제품관련 인증이 있다면 이 역시 상담시 제시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함.
- 서류, 명함 등을 건네줄 때 오른손을 사용해야 함. 이슬람 신도들의 경우 왼손(좌욕 등에 사용)은 불결한 것으로 간주
- 현지인들은 이름 앞에 Dato, Datuk, Tan Sri 등 작위 또는 Dr, Ph 등 학위를 나타내는 칭호를 붙이는 것을 좋아하므로 호칭 시에도 붙여주는 것이 좋음
- 이슬람 신도의 경우 돼지,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음주보다는 식사 접대 또는 선물 증정이 바람직함. 식사 접대 시 메뉴는 현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닭고기 요리가 무난함
- 정치 및 종교 관련 화제와 말레이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피하고 양국 관련 문화, 역사, 요리 등에 관한 화제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음. 첫 상담에는 대화의 주도권을 바이어가 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계와 면담을 할 시, 중국어가 가능하다면 중국어로 대화를 하는 것이 영어로 하는 것 보다 바람직함

□ 거래시 유의사항

- 실제 거래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현지 바이어들의 경우 상담에 임할 때, 자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을 듣기를 희망하나, 현장에서 즉답이 어려울 경우 약속한 기일 내에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 현지 시장 협소 및 가족단위 중소 무역업체가 많아 1회 오더물량이 소규모 이나, 일반적으로 일단 구매선을 결정하면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높음
- 계약이 성사되어 제품을 선적할 때에는 납기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제품 판매 후 지속적인 after-service를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긴요함
- 거래 관련 제반사항을 서면으로 처리하고 이를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함. 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부터 오랜 통치를 받아 제반 제도 및 관행이 영국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든 비즈니스 관계는 서면에 의해 진행됨.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구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함.
- 향후 문제 발생 시에도 주고받은 문서는 문제해결의 중요 실마리가 될 수 있음. 클레임을 제기하는 레터를 접수했다면, 이에 대해 서면으로 대응을 해야 함. 서면 회신이 없을 경우 바이어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음
- 일반적인 대금결제 방식은 은행을 통한 L/C 또는 T/T 방식을 통해 이루어짐. 하지만 말레이시아 중소기업과 거래 시에는 L/C 개설이 다소 번거롭게 생각하여 T/T 방식의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이럴 경우 기업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10 출장 및 체재 안내

□ 기후 및 복장

- 기후는 연 평균 섭씨 27-33도 정도로 한국의 여름 날씨와 비슷함
- 일반적으로 긴팔 셔츠에 넥타이를 매는 것이 보편적인 비즈니스 복장이나 중요한 상담이 있을 경우 하복 정장을 입는 것이 필요함

□ 시차 및 근무시간

- 시차 : 한국보다 1시간 늦음(말레이시아 오전 9시-한국 오전10시)
- 근무시간 : 일반적으로 8:30~17:30(백화점 및 상점 : 10:00-22:00)

□ 환전

- 공항, 호텔, 쇼핑몰 등에 있는 환전사무소에서 환전가능
- 통상 공항 및 호텔 보다는 쇼핑몰에 있는 환전소가 환전에 유리

□ 전압 및 플러그

- 전압은 240V, 50Hz이며 플러그는 3구 콘센트임
※ 한국 : 220V, 60Hz, 2구 콘센트

□ 한국과의 전화

- 대부분의 공중전화에서는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호텔 등에서 전화를 사용해야 함
- 한국→말레이시아 : (001 혹은 002 등)+60-3-2074-3596, 60-12-943-1173
- 말레이시아→한국 : 00+82-2-3460-7114

-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SIM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
 - SIM 카드는 현지 통신사(DIGI, MAXIS 등) 대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 시에는 여권을 지참해야 함
 - SIM 카드 장착 후에는 통신사 선불카드를 구입하여(보통 10링깃~100링깃)하여 충전하여 사용 가능
- ※ 일부 스마트폰의 경우 Country Lock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현지 교통

- 쿠알라룸푸르의 경우 택시, LRT(경전철), 모노레일,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있음

교통수단	특징
택시	·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택시 승강장이나 전화로 불러서 이용가능 · 시간거리 병산제 요금제로 기본요금은 3링깃이며 심야시간(24:00~6:00)에는 50% 할증요금이 부과됨.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요금이 훨씬 저렴함 · 출퇴근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의 평균 택시요금은 10-15링깃 · 콜택시 번호 : 03)8024-2727, 03)8945-2525, 03)6259-2020
LRT	· 1996년에 운영이 시작된 고가와 일부 지하통로를 달리는 경전철 · 암팡선 및 끌라나자야선 2개 노선이 있음 - 암팡선 : 센톨 티무루↔암팡, 센톨 티무루↔스리 페탈링을 연결 - 켈라나 자야선 : 푸트라 터미널↔켈라나 자야 · 6:00-23:00에 운행되며 운행간격은 4-5분(출퇴근시간), 10-15분(평상시)임 · 요금은 거리에 따라 0.7링깃-2.8링깃
모노레일	· 2003년에 운영이 시작된 최신 교통수단 · 티티왕사↔KL Sentral(중앙역)을 연결함 · 6:00-24:00에 운행되며 운행간격은 4-5분(출퇴근시간), 10-15분(평상시)임 · 요금은 거리에 따라 1.2링깃-2.5링깃
버스	· 시내 전역을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나 노선이 복잡하여 출장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LRT, 모노레일, 버스 관련 상세사항은 www.rapidkl.com.my 참조

□ 식수

- 일반적으로 먹는 물은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며 가격은 500ml 1병에 약 1.5링깃임

□ 팁, 신용카드 사용 등 현지 비용 결제

- 팁은 서비스세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할 필요 없음
- 대부분의 식당 및 상점에서 신용카드 사용 가능

□ 한국식당 위치

식당명	주소 및 연락처
고려원	· 주소 : Level 4, Suria KLCC, Kuala Lumpur City Centre, Kuala Lumpur (수리아 쇼핑몰 내) · 연락처 : (T) +60-3-2171-2189, +60-3-2166-6189
궁정	· 주소 : Lot 3, Level 3, PNB Darby Park Jalan Binjai 50405, Kuala Lumpur(KLCC 부근) · 연락처 : (T) +60-3-2166-5181, (F)+60-3-2166-4181
다운	· 주소 : Lot 6.40.00, Level 6, 168 Jalan Bukit Bintang, 55100 Kuala Lumpur, Malaysia(파빌리온 내) · 연락처 : (T) +60-3-2141-2100
리틀코리아	· 주소 : 5-3/7-3/9-3 Jalan Solaris One Solaris Mont Kiara 50480, Kuala Lumpur(몽키아라 소재) · 연락처 : (T) +60-3-6203-7217
오이소	· 주소 : 1st floor, Menara Hapseng Jalan P. Ramlee 50250, Kuala Lumpur(시내 중심부 소재) · 연락처 : (T) +60-3-2022-2330 * 무역관 소재 건물내 위치

□ 기타 주의사항

- 치안은 양호한 편이나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에 주의가 필요하며, 기본적인 질서를 준수하고 경찰관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주재국의 인종, 종교 또는 정치 현실에 대한 대화는 자제하여야 하고, 민족별로 식생활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히 공공장소에서 돼지고기 요리는 금기시 되고 있음

□ 주요 연락처

○ 대한민국대사관

- 주소 : No. 9 & 11, Jalan Nipah, Off Jalan Ampang, 55000 Kuala Lumpur
- 연락처 : (T) +60-3-4251-2336 (F)+60-3-4252-142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쿠알라룸푸르무역관

- 주소 : 9th Floor, Menara Hap Seng, Jalan P. Ramlee, 50250, Kuala Lumpur
- 연락처 : (T) +60-3-2117-7100 (F)+60-3-2142-2107

○ 대한항공

- 주소 : 6th Floor, Menara Hap Seng, Jalan P. Ramlee, 50250, Kuala Lumpur
- 전화번호 : (T) +60-3-2030-0200 (F)+60-3-2030-0382

□ 간단한 말레이어

상용어가 영어라서 대부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나 말레이계 인사들은 공용어인 아래 말레이어를 써 주면 훨씬 더 우호적임.

○ 어서 오세요 Selamat Datang (슬라맛 다땅)

○ 안녕 하세요 Apa Kahbar? (아빠 까바르)

* 대답으로는 '좋다'는 의미의 'Baik (바익)'을 사용함

○ 안녕히 가세요 Selamat Jalan (슬라맛 잘란)

○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뜨리마 까세)

○ 천만에요 Sama sama (사마사마)

○ 미안합니다 Marf(마아프)

○ 얼마예요? Berapa harga ini(브라빠 하르가 이니)

○ 예/아니오 Ya(야)/Tidak(띠닥)

11 쿠알라룸푸르 주요 명소

□ KLCC(쿠알라룸푸르 시티 센터)

- KLCC는 쿠알라룸푸르 시티 센터(Kulala Lumpur City Center)의 약자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쌍둥이 빌딩(452m, 88층)을 중심으로 쇼핑몰, 야외 공원 등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함
-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고 경전철(LRT: Light Railway Train)역이 있어 주말에는 현지인들도 쇼핑 겸 휴식처로 이곳을 많이 찾음. 또한 쿠알라룸푸르 컨벤션 센터 지하에는 5,000m² 규모의 대형 아쿠아리움(수족관)이 설치되어 있음
- 쌍둥이 빌딩은 말레이시아 국영석유공사(PETRONAS) 건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오전에 예약을 통해 42층 Sky Bridge까지는 올라가서 구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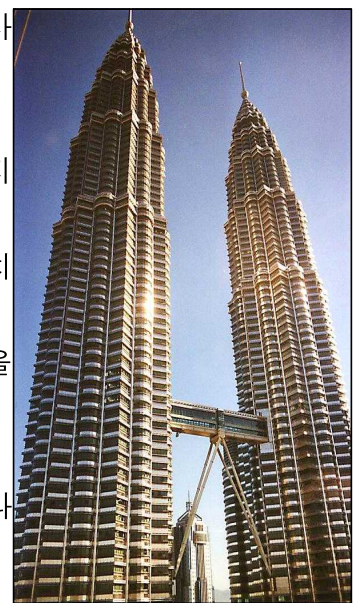
【페트로나스 타워】

○ 건물 개요

- 1998년 완공된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Petronas)의 본사 빌딩
- 지상 88층, 지하 6층, 고도 452m의 쌍둥이건물 2개동
- 2005년 타이베이 101빌딩(508m)에 의해 추월당할 때까지 6년간 세계 최고층빌딩
- 지상 41층(177m)에 세계최고 높이의 교량구조물 설치 (1,000톤, 삼성건설 시공)
- 강철과 유리로 외관이 마감되어 있으며 이슬람식 문양을 모티브로 디자인 된 것이 특징임

○ 공사 개요

- 미국인 Cesar Pelli가 설계하고, 일본 하자마건설(수풍댐 건설)과 삼성건설/극동건설 컨소시엄이 1개동씩 건설
- '94.3월-'98.2월간 건설되었으며, 총 공사비 7억불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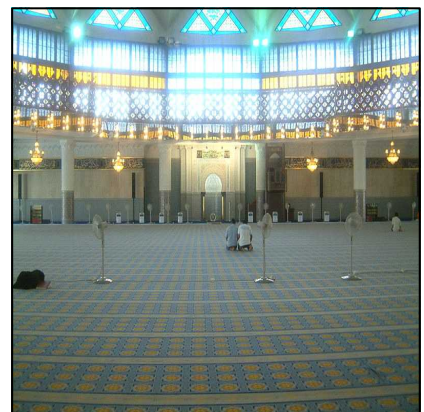
□ KL TOWER(KL 타워)

- o 높이 421m로 KLCC와 약 5분 거리에 떨어져 있어 페트로나스 타워와 함께 KL의 대표적인 건물임. KL 시내 주변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특히, 쌍둥이 빌딩인 페트로나스 타워의 전경을 볼 수가 있음
- o 전망대 식당은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하므로 최소한 2~3일 전에는 예약을 하는 것이 필요함. 이 레스토랑은 뷔페 식당으로 양식, 말레이식, 중식이 고루 갖춰져 있음. 좌석은 Tower 기둥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어 시내 전경을 앉아서 둘러 볼 수 있게 되어 있음



□ National Mosque(국립 모스크)

- o KLCC로부터 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회교 사원임. 넓이 5.2ha로 관광객들에게 공개되고 있음. 내부에는 경전 읽기를 배우는 학생들도 많이 볼 수 있음. 회교 사원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하며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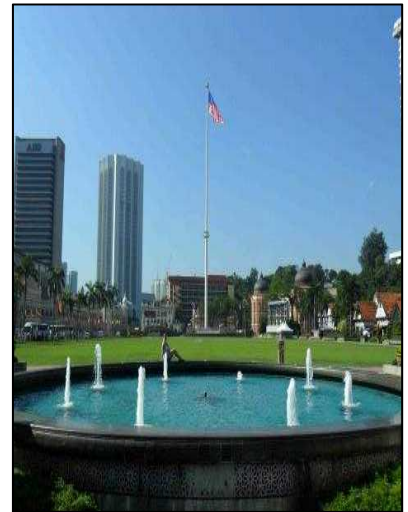
□ National Monument(국립 기념비)

- o National Mosque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독립 기념비로서 1949~1961년의 독립 전쟁에서 평화와 자유를 위해 싸우다 죽은 병사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짐. 1966년에 완성된 기념비로 분수를 둘러싼 전사의 청동상이 과거사를 엿볼 수 있게 해줌



□ Merdeka Square(메르데카 광장)

- o '자유'라는 뜻을 가진 메르데카가 광장의 이름으로 사용된 것은 1957년 8월31일 이곳에서 말레이시아가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면서 영국 국기가 내려지고 말레이시아 국기가 게양되었기 때문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100m 높이의 깃대에는 거대한 말레이시아 국기가 걸려 있음. 잔디와 분수들로 인해 풍경이 아름다워 사진촬영을 하는 관광객이 많음



□ Batu Cave(바투 동굴)

- o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 약 4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석회암 동굴임. 인도 외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힌두교 성지로 고대 힌두 사원의 본거지였던 가장 큰 동굴을 포함하여 3개의 동굴이 있음. 270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힌두교다운 코끼리 신이나 춤의 신이 모여져 있음. 계단 아래 좌측 편에는 조그마한 동굴 박물관이 있는데 힌두교 신에 관한 이야기가 벽화, 조각 등으로 표현되어 있음

- 매년 음력 1~2월 사이에 힌두교의 대표적인 축제인 타이푸삼이 이곳에서 사흘 동안 열리는데 힌두교도들이 몸에 바늘이나 쇠꼬챙이를 끼우고 등에 공작 모양의 제물을 지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음. 이 기간 중에는 힌두교도들이 대거 집결하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혼잡함

- 전 세계 힌두교 신자들의 성금으로 건립되어 2006년 1월에 일반에 공개된 42.7m의 거대한 황금색 무르간 신의 신상이 입구에서 있어 주변을 지나는 도로에서도 잘 보일 만큼 웅장함



□ Genting Highland(젠팅 하이랜드)

- 쿠알라룸푸르 시내로부터 약 1시간 거리에 해발 1,771m 높이에 만들어진 곳으로 호텔을 비롯하여, 놀이시설을 탈 수 있는 놀이공원, 테마공원, 말레이시아 유일의 카지노가 들어서 있음



- 정상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차를 이용해 올라갈 수도 있으나 젠팅 하이랜드 (Genting Highland)로 들어서는 도로 입구에서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음.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약 20분이 소요됨. 한편 케이블카 타는 위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골프장이 위치해 있는데 고지에 위치한 관계로 더위를 느끼지 않고 골프를 칠 수 있음



□ Putra Jaya(푸트라 자야)

- 쿠알라룸푸르에서 차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한 푸트라자야는 계획도시로 연방정부의 행정수도로 기능하고 있음. 여의도 면적의 80배에 달하는 녹색 대지 위에 첨단과 전통이 어우러진 현대식 건물과 각종 조형물이 잘 배치되어 멋진 풍광을 만들어 내고 있음. 수도 이전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곳이기도 함. 계획된 도시답게 청결미와 조화미가 뛰어나
- 툰쿠 압둘 라만 푸트라 초대 총리의 이름에서 왕자(Putra)를 따고, '최고'와 '성공'의 뜻을 지닌 '자야'(Jaya)를 결합해 만든 새로운 도시다. 모든 것이 계획된 신도시로, 주택가, 거리와 건물, 공원이 정원처럼 구비돼 있음
- 도시의 3분의 1이 인공 호수와 녹지,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슬람 양식의 독특한 조형미와 공간미를 활용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개발되어 있음. 특히 프르다나 푸트라 행정 건물과 수상 관저인 스리 프르다나 건물이 인상적이고 푸트라 광장은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고 있음

【Putra Jaya】

○ 건설 배경

- 한계에 처한 쿠알라룸푸르(KL)의 인프라 부족문제 해결
- 효율성 있는 현대적 행정센터 건설

○ 추진 연혁

- 1980년대 행정도시 건설 논의 시작
- 1993.6월 행정도시 건설 결정
- 1995.2월 마스터플랜 내각승인
- 1996.10월 도시건설 착공
- 1999.6월 총리실을 필두로 행정부처 이전(왕궁, 의회 및 2개 부처만 KL 잔류)

○ 도시 개요

- 쿠알라룸푸르 남쪽 약 30km 지점
- 파리, 워싱턴 등 세계 유명도시의 도로, 교량, 교차로 등을 벤치마킹하여 설계
- 상주인구는 약 8만명

□ 쇼핑물

- 말레이시아는 쇼핑물이 매우 발달해 있음. 말레이시아에서 쇼핑물은 단순히 쇼핑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식사, 영화 관람, 스포츠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종합 문화레저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 쿠알라룸푸르 시내 주요 쇼핑물은 다음과 같음

쇼핑물	주소 및 위치
파빌리온 (Pavilion)	• 주소 : 168 Jalan Bukit Bintang, 55100 Kuala Lumpur • 부킷 빈탕(Bukit Bintang) 모노레일 역에서 도보 3분 • 쿠알라룸푸르 최대 쇼핑물
수리아 (Suria KLCC)	• 주소 : Petronas Towers, 50088 Kuala Lumpur • KLCC LRT 역 바로 옆 •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의 타워를 이어주는 중간에 위치
미드벨리 메가몰 (Mid Valley Megamall)	• 주소 : Mid Valley Megamall, Level 31 Lingkaran Syed Putra, 59200 Mid Valley City • KL Sentral(쿠알라룸푸르 중앙역)에서 택시로 10분 • 또 다른 대형 고급 쇼핑물인 The Garden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음



www.kotra.or.kr